



좋은이웃교회 GOODNEIGHBOR CHURCH

목장나눔지

좋은이웃교회는 감격이 넘치는 주일예배와 사랑이 넘치는 목장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와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말씀을 근거로하여 주일은 '온세대공동체'가 모이고, 주중에는 '작은공동체'의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공동체: 목장모임은 '나눔중심예배'입니다. 설교자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적용점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코이노니아공동체'입니다.



WELCOME

함께 모인 목장원들이 환영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자(목자)의 재량에 따라 간단한 게임이나 유머를 통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또는 식사를 먼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WORSHIP

- 1) 익숙한 찬양을 준비하여 찬양예배를 드립니다(15분).
- 2) 찬양은 예비과정인 아니며,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합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예배를 드리십시오.
- 3) 목자가 항상 인도하지 말고, 은사를 가진 목장원 또는 서로가 돌아가면서 준비하면 좋습니다.



WORD

- 1) 주일설교/개인묵상 나눔 > 예수님 자랑하기(감사) >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을 나눕니다.
- 2) 말씀나눔은 설교 또는 개인묵상에 대한 적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 3) 예수님 자랑하기(감사)는 한 주간 동안 삶에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 4)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은, 어려움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깊이 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WORK

- 1) 함께 나누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2) 시간이 여유롭다면 한 사람씩 소그룹 가운데에 넣어, 몸에 살짝 손을 얹어 중보기도 합니다.
- 3)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사역'입니다. 중보기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주일설교

제목: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본문: 예레미야 42:1-6절

눈물의 예언자로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는 주전 640년 경 베냐민 땅 아나돗에서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예레미야 1:1절). 그는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십삼 년(주전 626년) 20세도 안 되는 젊은나이에 하나님께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예레미야 1:2절). 예레미야 42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B.C 586년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은 남유다를 통치하기 위하여 '그다랴'를 총독으로 임명합니다(예레미야 40:7절). 총독이 된 그다랴는 '미스바'로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읍니다(예레미야 40:8절). 이때 가례아의 아들 유다 군대 장관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그다랴에게 충성한 요하난과는 반대로 왕족 출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시기하여 암몬 왕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아서 '그다랴'를 죽입니다(예레미야 41:2절). 그러자 그다랴에게 충성하던 요하난은 '그다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들은 도망가는 길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습니다(예레미야 41:17절).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만나 기도를 부탁하는 상황입니다(예레미야 42:1-2절).

요하난은 어려운 문제해결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올바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6절에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라고 하며, 예레미야에게 부탁합니다. 예레미야가 십 일 후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을 것이니 떠나지 말고, 나라를 재건하라 합니다(렘 42:7-22절).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고백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인간은 연약하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와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는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좋은이웃교회' 신자(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나눔질문

1.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2. 여러분은 처음 고백을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 좋은 시계? 나쁜 시계? ”

알래스테어 매킨타이어는 책 '덕의 상실'에서 어떤 것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결코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계가 좋은 시계인지, 나쁜 시계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시계로 못을 박으려고 하다가 시계가 부서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시계로 못이 박히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시계를 '나쁜 시계'로 규정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못을 박지 못하는 시계는 나쁜 시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못을 박는 것은 시계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며, 그 목적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음 받은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목적을 알아야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많은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며 상처를 입고 자신을 스스로 나쁜 인간, 실패한 인생으로 규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계로 못을 박으면서 잘못된 시계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인간은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발견하고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가르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생대로 지음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누리시는 사랑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 '영적 성장의 첫걸음 중' -

THINK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목적은 어디서 배울 수 있으며, 인생의 목적을 배우는데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을장님들께서는 목장보고서를 종합하여 <마을보고서>를 작성 후, 목장보고서와 함께 주일예배 후에 목장사역센터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수요일예배 담당안내					
담당	2월 2일	2월 9일	2월 16일	2월 23일	3월 2일
마을특송	살롬	온유	임마누엘	무지개	행복한
대표기도	하인애 권사	고금희 권사	김미란 권사	박윤미 권사	손숙희 권사

마을별 교회봉사 담당안내					
담당	2월 5일	2월 12일	2월 19일	2월 26일	3월 5일
본당청소	살롬	온유	임마누엘	무지개	행복한
중식봉사					

주요광고

1. 좋은이웃교회는 7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현장예배 및 영상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2. 월요목양새벽기도회에 적극 동참해주셔서, 기도로 공동체를 함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3. 설 연휴기간에도 예배는 변동 없습니다(설 가정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34회 안양지방회 정기총회 / 일시: 2월 14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좋은이웃교회
5. 예배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싱어.반주 / 문의: 서민기 목사).
6. 파워전도: 부서 및 기관은 해당 주간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매주 '토요일'에 전도합니다(2시 30분/2층 집합).

금주: 집사회 / 다음 주: 새가족부

교우소식

환우들을 위한 치유 중보기도

동복희 전도사/김수차 권사/유수립 권사/김해생 권사/이문형 장로/김진석 집사
김태인 집사/이명옥 권사/한정희 권사/이향숙 사모/유춘자 권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합니다